

군민 소통강화 · 현장행정 나서

박우정 고창군수, 군민의 애로사항 파악 · 각종 건의사항 · 의견 수렴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취임 초기부터 각종 현안사업과 당면 업무에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과 고창군 발전에 공직자와 군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군은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치면서 군민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각종 건의사항과 의견을 수렴해 군정을 추진하며 주민 불편사항 등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각 읍면사무소에서는 추진계획에 따라 좌담회 등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접수한 민원은 처리 결과를 5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리를 통해 현장행정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한 예로 이달 초 해리면은 현장행정을 통해 보도블럭이 함몰되고 도로가 파손된 곳에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보수와 복구를 추진하며 생활위험요소를 해결했고, 대신면은 마을 안길에 파손된 2개 마을에 보수공사를 시행키로 했으며, 심원면은 마을 진입로 고사목 제거를 비롯해 재해위험 지역과 용배수로 정비 대상지 현장 확인을 통해 영농 편의를 돕는 정비추진기로 했다.

주민들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현장행정 시에 불편사항이나 마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 호응이 매우 높다.

군은 9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와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현장행정 추진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개 부서에서 발굴된 40개의 주민불편사항 및 제안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신속 처리 방안 등을 토론했다.

박우정 군수는 "이 시기에는 해빙기를 맞아 급경사지와 응벽 등 안전취약요인 취약시설들에 중점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할 것이고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 불철산불예방 등에 대한 홍보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시민의 다양한 생각 · 의견 실행 지원

남원시가 본격적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간다.

남원시는 문화도시 사업, 도시재생 사업, 아파트 공동체 사업 등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다양한 국비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명칭은 다양하지만 공동체를 만들고 주민역량 여부가 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남원시는 주민 주도와 참여가 중요한 전환시점에서, 다양한 시민 활동들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지원할 것인가 고민하여, 이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지원할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그 일환으로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추진 위원회를 3월 9일 구성하였다. 앞으로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추진 위원회를 통해 남원시에 필요한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센터설립 필요를 논의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주민의 관심사가 다양한 만큼 주민참여의 통로도 다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으로 변화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하고 있다. <남원시민 원탁회의>를 비롯하여,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 <남원, 꿈꾸는 마을학교> 등이 그 예이며, 하반기에는 <시민공동체 창안대회>를 시행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야영장 3개소 안전점검

임실군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관내 야영장 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화재사고에 대비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주완산소방서(임실119 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야영장 이용자 및 사업주의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화재 예방기준, 전기 및 가스 사용, 야영장 내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광진흥법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에 맞춰 집중 점검했다.

또한 소화기 적정대수 비치여부, 방화수(사) 비치, 잔불처리시설 구비 등 화재 예방 시설과 대응 체계에 만전을 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쌀 변동직불금 112억 지원

순창군이 올해 지급하는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4,020농가에 112억원으로 2005년 쌀 직불제 시행이후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계속되는 흉년 및 쌀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쌀값 폭락이 원인이다.

쌀 변동직불금은 쌀의 수확기인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인 80kg당 18만8000원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의 85% 중 이미 지급된 고정직불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16년산 쌀 수확기 전국 평균가격은 12만9711원으로 전년대비 14% 하락되었다. 군은 10일부터 변동직불금을 지급해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최근 쌀 변동직불금 지급은 2010년 이후 수확기 산지 쌀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3년 연속 지급되지 않다가 2014년부터 산지 쌀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서 농가에 지급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당뇨없는 지역 만들기 '투톱전략' 가동

맞춤형 군민 교육과 당뇨집중관리 마을로 당뇨치유 본격 나서

순창군이 건강장수연구소 '맞춤형 군민 당뇨교육'과 보건의료원의 '당뇨집중관리 마을' 두가지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는 투톱전략을 통해 주민들의 당뇨치유에 본격 나섰다.

특히 이 두가지 사업은 단계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 운영을 통해 치유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와 주민들의 혈당 변화모습 등을 데이터화 하는데도 집중할 계획이다.

맞춤형 순창군민 당뇨교육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당뇨에 대한 원인과 치유 원리, 합병증을 이해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당뇨치유 식단, 개인별 맞춤 운동법 등을 체험하고 배우는 교육이다.

당뇨명의로 선정된 조선대학교 배학연 교수가 참여해 공신력을 높였다.

특히 그동안 1박 2일 동안 진행된 단계적 교육을 지양하고 참여교육생들을 위해 5회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할 계획이다.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 동안 4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올해 첫교육이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지역주민들은 장수진흥계 전화 650-1527번으로 신청하면



순창군이 건강장수연구소 '맞춤형 군민 당뇨교육'과 보건의료원의 '당뇨집중관리 마을' 두가지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는 투톱전략을 통해 주민들의 당뇨치유에 본격 나섰다.

참여할 수 있다.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하는 '당뇨집중관리마을'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사업은 지역의 한개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2달간 꾸준히 당뇨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2월 시작해 4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순창읍 백산마을이 대상이다.

마을경로당을 전문 인력이 방문해 진행되며 혈압, 혈당, 총콜레스테롤을 방문 시 마다 측정하고 단백질 등 만성질환 수치도 점검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무·배추 뿌리혹병 사전방제 약제 지원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무·배추 뿌리혹병 사전방제 약제를 지원해 고품질 무·배추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장, 고창배농조합법인 대표, 농업경영인연합회장 등 방제관련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배추 뿌리혹병 사전방제를 위한 '병해충예찰방제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무·배추 뿌리혹병 약제공급 방법, 약제선택 등 세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내 무 배추 재배면적 44.8ha를 방제할 수 있는 약

제를 공급하기로 했다.

무·배추 뿌리혹병은 뿌리부분에서 혹이 생기면서 잔뿌리의 성장을 막아 말라 죽게 되는 병으로, 정식 전에 사전 방제를 하지 않으면 수확은 물론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져 재배농가들의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병이다.

이에 따라 군은 방제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뿌리혹병 방제 약제를 지원해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4월 초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약제를 공급 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핵심인력 육성

순창군이 9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2017년 농업농촌혁신대학' 개강식을 갖고 지역농촌 핵심인력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개강식은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혁신대 입학생 48명, 총동원회 50여명 등 총 100여명의 관련자들이 참석해 2017년 농업농촌혁신대학의 출발을 축하했다.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처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는 농촌인력 양성 교육이다.

오는 14일부터 12월 졸업일까지 전

국의 농업분야 최고 전문강사를 초빙해 반 별로 총 36강좌를 진행 할 예정이다. 집합교육 31강좌, 현장교육 5강좌를 운영하며 교육 내용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농산물가공, 농산물마케팅, 농촌체험관광, 리더십 등 순창군 지역 농업 및 농가들의 6차산업화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했다.

군은 혁신대학 수료생들이 농업발전 이 이끌고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삼라농정 실현에도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임실군은 9일 '2017학년도 새학기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학년 초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임실초등학교 앞에서 진행했다.

학교폭력 신고절차와 청소년유해업소, 유해약물(술, 부탄가스 등) 구별방법, 청소년증 발급 등의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심민 군수와 김광호 임실경찰서장 등 관내 기관단체장이 동참해 청소년이 행복한 밝은 사회 만들기에 앞장섰다.

군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축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여기행이나 가볼까?

관촌 사선대

2천년전 네 신선과 네 선녀의 전설을 간직한 사선대는 조각공원 및 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원, 인조잔디구장을 갖추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천담 구담마을

섬진강 강변과 산이 어우러져 한쪽의 수채화를 담은 듯한 마을로 포장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순환도로 드라이브길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전국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이 길은 수목산수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옥정호 붕어섬(외얏날)

호수 속에 있는 신비로운 섬!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봄과 가을에는 물안개로 풍경이 절정에 이릅니다.

임실군